

가산농협 2004 白米 시식회

조합원 20여명 참석, 고품질 기능성 쌀 생산 위해



포천시 가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심재호)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합 2층 회의실에서 2004 白米시식회를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포천시 가산농협협동조합(조합장 심재호)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합 2층 회의실에서 2004 白米시식회를 2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는 고시히가리 품종과 게르마늄 농법,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쌀 등 7가지 종류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시식회 결과 게르마늄이 함유된 쌀이 맛도 가장 뛰어난 것으로 판명돼 향후 15만평에 게르마늄 쌀 생산을 나서기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동안 가산농협은 고품질 향상을 위해 지역에 맞는 우수품종을 선택하여 수년째 비료와 농약을 매년 1억5천만원씩 무상지원하여 화성과 수라쌀 두 가지 품종을 주로 재배하게 됐다.

경기도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중동부유럽서 획기적 상담성과

도내 8개 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한 중동부유럽 시장 개척단이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크로아티아, 헝가리, 폴란드에서 현지 방문하여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을 펼친 결과 157건 31,635천불(약 350억원)의 상담과, 76건 7,403천불(약 81억원)의 계약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수출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중동부 유럽에서의 중소기업 신규로 통상단으로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앞으로 추가적 접촉과 상담을 가만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계약과 달성과 중동부 유럽시장의 고정적인 수출량 확보 등 성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경기도가 주관되어 비상장 유망 중소기업 중 제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참여하였으며, 참여업체는 고급 유니폼 제조회사인 시흥시 소재 한일섬산, 첨단 보안장비 생산회사인 부천시 소재 유성전자 등 총 8개 유망 중소기업체가 참가하였다.

시장개척 활동은 방문국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헝가리 부다페스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현지 경제인과 바이어를 상대로 한 이번 상담활동은 예상과는 달리 현지 경제인과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보여, 1일 평균 지역당 50여건 이상의 제품설명 및 수출상담이 이루어 졌다.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탐 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동양금속(주)

특수바퀴 제작 전문



대표이사 김봉석

30년동안 캐스터만을 전문제작하며 캐스터 제작 노하우와 축적된 고도의 기술력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동양금속(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308-5 대표이사:김봉석) 동양금속은 저가 와 고품질의 캐스터만을 연구 개발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개발하는 정신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 생산으로 고객의 운송수단에 시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생산하고 있는 주물은 월 1000톤, 바퀴는 월 150,000개 생산으로 고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양금속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중 경량용캐스터 1000시리즈의 용도는 사무용 소형 실내용, 각종 사무기기류, 여행용 가방, 전사용 진열대, 경량 운반구 등이며 깊은 Race Wall 구조, 내구성 있는 King Fin 구조, 리벳팅 조립, 산화피막처리, 경질 P.P바퀴부착이 특징이다. 경량캐스터 1500시리즈의 용도는 사무용 의자 및 사무기기, 전시장 소형진열대, 소형 운반구 등이며 내구성 있는 King Fin 구조, 경질의 P.P 바퀴, 리벳팅 조립, 유연한 구동성과 고급강구와 깊은 Race Wave 구조, 다양한 도금 및 다양한 바퀴사향 선택이 특징이다. 그 밖에도 경량용캐스터 2000시리즈, 경량용캐스터 2500시리즈와 경량용캐스터 3000시리즈 등이 폭 넓게 생산되고 있다. 중간 하중용 캐스터 3500시리즈의 용도는 백화점 운반차, 쇼핑카, 호텔용 핸드카, 제과점 진열대, 각종 경중량용 운반구, 대형전자 제품, 오락기 케이스 운반구 등이며 깊은 하중력 강화한 철판 디스크에 연질, 우레탄, PVC 특수코팅 바퀴구조, 회전력 강화한 특수볼 베어링 사용, 견고한 강구의 이중 배열, 내구성 뛰어난 아연도금 처리, 특수 접착으로 수명연장, 브레이크 사용으로 일정한 장

21세기 물류운송수단을 주도하는 기능성 캐스트 개발로 편리함 추구

간과 낭비를 줄이며 캐스터분야 선두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사훈에래 전 임직원들은 맡고있는 각 분야별로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업체로 정상을 지키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21세기 물류운송수단을 주도하는 캐스터 생산으로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동, 수송의 필수적인 운반캐스터의 작은 힘으로 시간과 낭비를 줄임으로서 찾는 고객들에게 후자를 가져오게 하고

소에 고정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특허제품이다. 그 밖에도 중간 하중용캐스터 4000시리즈, 5000시리즈, 6000시리즈 등과 건축 장비형 시리즈, 경량용캐스터 트윈휠시리즈, 중 하중용캐스터, 항가차, 파이프 항가차, 조철과, 푸드 마스터, 하차, 폴리우레탄 바퀴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문의전화 031)534-1851~2



차별화된 캐스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양금속(주) 전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국립수목원 휴일 개방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유왕현

‘광릉숲 문화의 거리를 가꾸는 사람들’ 회장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세계화는 무한 경쟁을 촉발시키며 국가차원 뿐만아니라 지역차원에서 경제발전에만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그러나 극심한 경기침체, 원유가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당 원화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악재가 겹치면서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지역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경제 발전 전략들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관광포천의 가치를 내걸고 산정호수권, 운악산권, 일동은전권, 신북은전권, 국립수목원권으로 관광권역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수목원, 베이스타운, 서운동산, 고모리 카페마을 등이 국립수목원 관광권역에 속하는데, 국립수목원은 중앙정부(산림청)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1987년 광릉수목원이 일반에 공개되었고 무제한의 입장객이 몰리면서 주말, 휴일이면 국지도 86호선(남양주시 부평리→포천시 이등고리)이 주차장화되면서 극심한 교통정체를 일으켰고, 차량통행의 급격한 증가로 광릉숲이 훼손되기 시작했다.

1987년 광릉수목원을 개장한 이후 1996년 도에는 방문객수가 120여만명에 이르게 되었고, 정부는 1997년도에 광릉숲 보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일전 예약제와 1일 입장객 5,000명으로 제한, 산림욕장 및 야생동물원 폐쇄, 주말, 휴일 개방 폐지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이러한 결과로 1996년 120여만명에 이르렀던 방문객수가 2003년에는 30여만명으로 줄어 들게 되었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던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침체의 길로 들어 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게 되었다. 지역경제의 한축인 가구, 섬유업의 쇠퇴로 지역주민들은 국립수목원 휴일 개방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중반에 포천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립수목원의 휴일 개방에 대한 탄원서를 산림청과 관계기관에 제출했지만 이렇다할 결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립수목원은 현 김형광 원장 부임이후 2004년 6월 2일부터 예약제도를 5일전 예약, 1일 5,000명 제한입장을 하되, 예약자가 5,000명 미달시 방문하루전까지 추가 예약 가능하도록 관람제도를 개선하였다. 2004년 7월 23일 광릉숲 '차없는 거리' 조성 공청회 개최, 2004년 8월 9일~9월 3일까지 자연을 담은 "부채 그림 전시회"개최, 2004년 9월 9일~9월 17일까지 "자연을 담은 서화 전시회" 개최, 2004년 10월 17일(일요일) 제3회(산의 날) 국립수목원 특별무료개방 등 여러가지 문화행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것은 지역주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제3회(산의 날)국립수목원 무료개방 행사에는 예약제와 5,000명 제한 입장으로 예전과 같은 극심한 교통체증이나 무질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지역상가의 매출도 평소보다 20~30% 신장하였다.

현재의 국립수목원 관람제도(5일전 예약, 1일 입장객 5,000명 제한, 5,000명 미달시 1일 전까지 예약 가능)을 유지하면서 휴일에 개방하고 평일에 휴일 한다면 환경분자들이 우려하는 광릉숲 훼손은 막으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지역주민들은 환경분자들이 국립수목원 휴일개방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나 전횡행위라고 몰아 붙이는 것에 대해 심히 못마땅해 하고 있다.

환경분자들은 사폐산, 천성산 터널공사의 예에서도 보듯이 아무런 대안없이 또한 책임지는 사람없이 무조건 빗장을 걸어 잠궈버린 환경이 보호되고 보존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지켜온 광릉숲은 지역주민으로서도 반드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광릉숲이 보존되어야만 지역주민들의 이익도 보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한 일방에 의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광릉숲 보전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규제 일변도가 아닌 광릉숲 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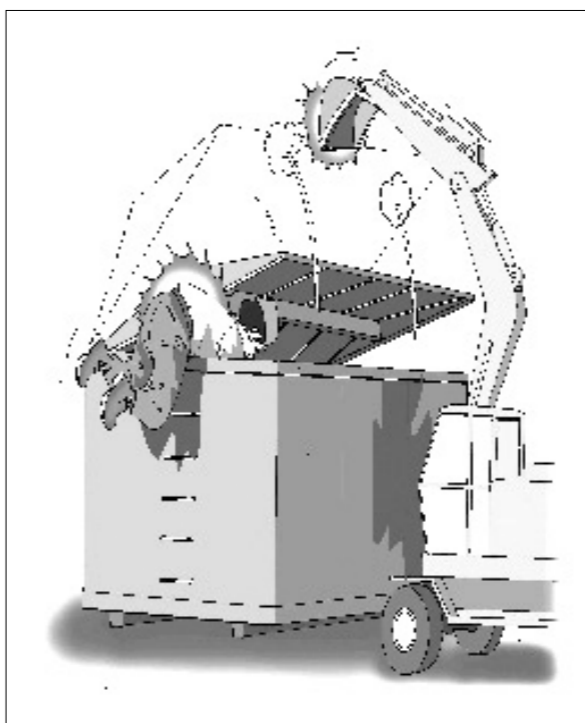
여기서 "시가"란 볼록점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실제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시장주식과 같이 공개시장이 형성되어 시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건물 : 국제청 기준시가(공통주택, 상업용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제청장이 매년 산정하여 고시하는 가액)
- 예금·적금 등 : 예입총액에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
- 위와 같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및 국제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국제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므로 시가와의 차액만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금융재산은 100%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없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순 금융재산가액의 20%(최고한도 2억원)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므로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경우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운반 적재함 덮개에 협착



재해발생 상황도

0000년 0월 쓰레기 적치장에서 운반용 적재함 외부로 돌출된 이물질 제거작업 중(상체가 내부로 들어간 상태) 굴삭기의 삽날에 지지되어 있던 쓰레기 적재함 덮개가 흔들려 낙하되어 협착,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첫째, 굴삭기 삽날을 굴착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덮개를 개방하기 위한 기계기구로 사용하였다. 둘째, 협착 위험 구역에서 작업금지 및 불시낙하 방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흡하였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착위험 구역에서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둘째, 적재함 덮개의 개폐장치 설비 및 덮개 지지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굴삭기의 용도 외 사용작업을 금지해야 하겠다.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031)826-6091